

2003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정 병 설 (서울대)

1. 새자료의 소개
2. 소설일반론
3. 비교문학적 접근
4. 장편소설
5. 판소리계 소설
6. 한글단편소설
7. 전기, 한문전, 봉유록

이 글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출간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고전소설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짧은 시간의 조사만으로도 20여 종의 단행본, 십수 편의 박사논문, 20여 편의 석사논문, 그리고 150편 이상의 학술지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 모든 성과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새로 발굴된 자료, 새로운 시각, 연구 흐름 등을 대강 개관하였을 뿐이다. 거론되지 못한 연구가 적지 않고, 낮은 안목 때문에 간과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1. 새자료의 소개

간호윤은 조희웅의 <고전소설이본목록>에 홍윤표 소장으로 나와 있는

<마두영전>을 처음으로 연구하여 단행본을 출간하였으며, 아울러 <선현유음>이라는 한문소설집의 역주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선현유음>은 이른바 <신독재수택본전기집>이나 북한의 <화몽집>과 함께 주목될 만한 한문소설집으로 보인다. 또한 김광순은 자신이 소장한 여결형 창작군담소설 <덩각록>를 소개하였다. 범위를 넘어선 것이긴 하지만, 2004년에도 학계에 속속 한문본 <청백운>, <금선각>은 기존의 것과는 계통이 전혀 다른 <김영철전>, <곽중운전> 등등이 소개되고 있다.

2. 소설일반론

일반론 분야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세책연구이다. 세책연구는 최근 이윤석, 정명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책고소설연구>는 이 연구과제의 1차년도 결과물로 제출되었다. 세책 연구의 총론을 다시 쓰고, 이미 간행된 논문과 새 논문을 합치고, 마지막으로 향유론과 관련된 외국 논문 두 편을 번역하여 묶어낸 것이다. 세책소설의 서지를 정리한 성과가 없지 않으나,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정병설이 이에 대한 평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병설은 여기서 세책의 근대적 변모에 주목하면서 근대세책을 전대세책과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통적 의미의 세책은 쇠퇴했지만, 소규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영리, 비영리 세책업이 나타났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정명기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동양문고 세책소설의 이면에서 세책장부를 찾아 발표하기도 하였다.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기대한다.

소설 유통 분야 외에, 정출현, 정환국 등이 보인 표현 매체로서 한문과 한글의 특징에 대한 연구와, 고전소설을 애니메이션이나 희곡과 건준 연구들은 고전소설 연구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비교문학적 접근

비교문학적 접근은 최근 연구의 중요한 흐름이다. 종전에는 대개 중국문학과의 비교였지만, 최근에는 비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문학과의 비교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베트남, 폴란드까지 대상을 넓히고 있다. 직접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영향 수수 관계를 떠난 문학 작품의 비교는 한국문학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국문학과의 비교에서는 김성탄을 중심으로 한 중국 소설비평이 조선 후기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한매의 연구가 흥미로웠다.

4. 장편소설

2003년 이 분야에서는 두 곳에서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에서 준비한 ‘장서각 소장 고소설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한국문학연구>에서 마련한 ‘18세기 장편소설의 제문제’이다.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장편소설의 연구경향을 대략 살펴보면, 이본이나 개별 작품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관계를 소설 향유층이나 소설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가 적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지영은 <창선감의록> 한문본과 한글본의 차이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그것이 각각 향유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였고, 임치균은 동일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별개의 두 작품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을 비교하여 조선 후기 장편소설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변개하면서 원이야기에 대한 태도를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지연숙은 <소현성록>과 그 연관 작품을 분석하면서, 조선후기 소설이 향유 과정을 통해 선행의 소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서사를 재생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말하자면 별개의 이본이나 작품을 따로 연구하기보다 서로 연관 지어 연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런 관계에 대한 천착은 소설과 그 근원

이 되는 다른 담론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송성욱이 <위씨오세 삼난현행록>을 궁중 儀軌와 비교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본과 이본, 작품과 작품, 작품과 다른 담론을 연관 짓는 것처럼, 장편 소설의 한 부분과 부분의 연관을 해명하고자 한 것이 변진한의 논문이다. 그는 판소리의 ‘장면의 독자성’처럼, 장편소설에서도 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향유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후기 장편소설은 근대소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곧 고전장편소설을 근대소설처럼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특히 <삼한습유> <난학몽> <옥수기>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삼한습유>에 대해서는 서신혜가 이본 비교를 통하여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낙질의 장서각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고, 이기대는 <난학몽>의 작가 정태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광국은 19세기 한문소설의 사상적 층위를 탈주자주의 성향의 <옥루몽>과 주자주의와 탈주자주의가 혼재된 <옥수기>, 주자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난학몽>으로 나누어, 결과적으로 19세기 한문소설이 근대 변혁의 시공간 속에서 일정한 사상 논쟁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격인 <춘향전>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한문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정하영의 <춘향전의 탐구>는 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묶은 것으로, 한문본 <춘향전>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보여준다. 류준경의 박사논문은 여기에다 <춘향전> 이본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익부전>을 본격적으로 고찰하여 <춘향전>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류준경은 <익부전>을 전라도 향리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문서 기록적 성격이 강한 이본으로 보고 있는데, 향리층이 판소리 연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

이 이훈상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역사학자인 이훈상은 경상도 함안군수와 고성부사를 역임한 오형묵의 <고성총채록>과 전라감사 윤영신의 아들이 문과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와 관련된 고문서인 <연수전하기> 등의 고문서를 통하여 판소리의 성장과 변모에 끼친 향리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6. 한글단편소설

한글단편소설은 다양한 하위 유형이 있다. 우선 영웅소설은 박일용의 종합적 연구서가 간행되었다. 영웅소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여성영웅소설로 향하는 듯한데, 이우경의 연구와 최지연의 <이봉빈전>에 대한 연구가 그 예이다. 단편소설은 그 성격상 설화적인 소재나 특히 史話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은데, 따라서 설화나 역사와의 관계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박경남은 임경업 이야기와 <임경업전>을 비교하여 민중이 바라본 민족 영웅 임경업의 상과 지배층에서 만들어낸 임경업의 상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밝히고 있다.

새로운 자료를 찾고 작가를 고증하는 기초적인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찬은 <호섬전>의 작가를 종전에는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로 추정하였다가, 최근 논문에서는 윤시병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작가를 찾는 작업은 작품을 구체적인 역사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자료를 좀 더 폭넓게 보면 조만간 작가 문제가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참고로 규장각 소장 <구래공정충직절기> 권22 말미에 “병신납월이 십일일 야의 안동 군부협판택 서제소 등서하노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호섬전> 말미에 있는 ‘소안동’의 ‘윤병사택’과 여기 보이는 ‘안동 군부협판택’이 동일한 곳이 아닌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전기, 한문전, 몽유록

일찍이 <설공찬전>의 발굴로 주목을 받았던 이복규는 최근 논문에서 <설공찬전>이 실제 있었던 소문을 다소 가공하여 창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시기(16세기초)에 이미 <오륜전전> 등이 한글로 널리 향유되었음을 들어 조선소설사가 생각보다 이른 시기부터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소설사의 초기 성장은 17세기 전기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계속 확인되는 바이다. 17세기에 들어서서 傳奇가 통속화·세속화하고 또 당근대의 역사 현실로 관심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전기가 한글소설과 상호 교섭하고 있음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양승민은 그런 연구 성과를 이어서 이런 경향이 재자가인소설의 향유와 함께 한글장편소설 발생의 주요한 계기라고 보고 있는데 흥미할 만한 지적이다. 17세기 傳奇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지속되고 있는데, 정확성의 <유소랑전> 연구와 간호윤의 <최현전> 연구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19세기 傳奇에 대한 연구도 최근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혜란은 <절화기담> <포의교집>이 보여준 양식적 특징이 더 이상 “이 두 작품을 전기소설로 귀속시키는 것은 생산성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하면서, 이들 작품을 차라리 “세대소설이나 애정소설의 맥락에서 언급할 때 더 풍부한 논의를 생산해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경청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소설연구들을 개관하면 문헌 조사와 이본 비교에 치중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서사 분석과 배경 사상에 초점을 맞춘 것들도 있다. 이들 방법 외에 별도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자료로만 빠져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새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중요한 작품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자꾸 새 자료로 가다보니 논의가 모아지질 않고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계가 침체하게 된다. 문헌학적·역사적 안목을 갖추고, 또 서사

적 전망과 문학적 가치 판단을 보이는 그런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지난해는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수적으로는 적지 않은 연구이지만, 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것이 썩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부가 주도하는 학문계량주의가 논문을 많이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한 바람에, 너도나도 여기저기 논문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취업을 해야 하는 신진연구자들은 더욱 마음이 조급해져서, 유사한 논문을 여기저기 발표·간행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연구자의 기본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참고문헌¹⁾

<소설일반>

- 인권환, 『고전문학연구의 쟁점적 과제와 전망』 (상하 2책), 월인, 2003.12.
- 간호윤, 『마두영전연구』, 경인문화사, 2003.11.
- 이창헌, 『이야기 책 이야기』, 보고사, 2003.9.
- 세책고소설연구회 편, 『세책고소설연구』, 해안, 2003.
- 김경미, 『소설의 매혹; 조선후기 소설비평과 소설론』, 월인, 2003.6.
-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미학』 (1, 2 전 2책), 새문사, 2003.3.
-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2003.8.(개정증보)
-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3.
- 정영아, 「춘향 이야기의 근대적 변용 양상 연구」, 고대 박사
- 김광옥, 「고전을 수용한 애니메이션의 공간 배경 연구 : 효녀심청과 별주부해로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
- 황미숙, 「고소설에 등장하는 시부 연구」, 이화여대 석사
- 김민영, 「고소설에 수용된 변신 화소 연구」, 한남대 석사
- 방 실, 「고전소설 운지경전과 희곡 운지경전 비교 연구」, 성신여대 석사
- 정병설, 「세책 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국문학연구』 10, 2003.12.
- 조광국, 「2002년도 소설문학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10, 2003.12.
- 경일남, 「한국언어문학 고전문학 분야 수록논문분석」, 『한국언어문학회』 51, 한국언어문학회, 2003.12.
- 정출현, 「한문소설 연구의 시대적 추이와 과제별 전망」, 『大東漢文學』 19, 대한문학회, 2003. 12.
- 정출현, 「표기문자의 전환에 따른 고전소설 미학의 변이양상 연구 —16~17세기 고전소설의 문학사회학적 지평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학회, 2003.12.
-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2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종합연구센터, 2003 여름.
-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상—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聖心語文論集』 25, 성심어문학회, 2003.2.

1) 이하 목록은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순으로 제시함.

-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문홍구, 「敍事構圖에 수용된 불교사상 고찰: 인과응보의 윤회전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3.
-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3.10.
-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 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12.
- 姜在哲, 「古小說의 懲惡樣相과 意義」, 『東洋學』 33,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3.2.
- 이윤석, 정명기, 「개항기 소설과 야담에 나타난 서구 인식」, 『열상고전연구』 17, 열상고전연구회, 2003.6.
- 李敬惠, 「고소설의 西王母 神話 연구」, 『人文科學研究』 11,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9.
- 방동수, 「고소설에 수용된 '부마되기' 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 언어학회, 2003.5.
- 서혜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기녀의 정절실현 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학회, 2003.5.
-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사찰공간의 실상과 활용양상」,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12.
- 김진영, 「음악의 서사적 기능과 그 의미— 구운몽과 옥루몽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12.
-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 방식」,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심치열, 「구운몽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연구— 한승원의 <꿈>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비교문학>

- 이복규, 『형차기·왕시봉전·왕시봉기우기의 비교연구』, 박이정, 2003.
- 한 매, 「조선후기 김성탄 문학비평의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
- 이민희, 「한국·일본·폴란드·영국의 역사영웅서사문학 비교연구: 임경업전·고쿠센야갓센(國性爺合戰)·콘라드 발렌로드(Konrad Wallenrod)·아이반호우(Ivanhoe)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
- 김소야자, 「17·18세기 한문단편과 우키요조시(浮世草子) 비교연구: 치부와 성애

- 모티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
- 한 룡, 「금요신화와 전등신화의 작가의식 비교연구」, 한신대 석사
- 韓 梅, 「조선후기 실학파의 金聖嘆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10, 한중인문학회, 2003. 6.
- 山田恭子,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과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구조적 특징과 결혼형태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 김옥희, 「호질과 외눈박이신(目ひとつの神)의 비교연구—인성물성론의 관점에서」,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 최 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임진록」,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 이진원, 「월극(越劇) 춘향전(春香傳)과 창극(唱劇) 홍루몽(紅樓夢)—중국 희극과 한국 창극의 교류에 관한 소고—」,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
- 윤주필, 「오묘전비 변안소설 이본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12.
- 김동석, 「열하일기의 인물 형상화 기법—김성탄의 수호전의 인물 비평과 비교하며—」,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선성운, 「한·중 소설 비교 연구 방법론의 고찰 — 유형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1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장편소설>

-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화전』, 보고사, 2003.8.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1.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
- 정의영, 「삼한습유 연구」, 대구대 박사
- 서신혜, 「삼한습유의 문헌 수용 양상과 변용 미학 연구」, 한양대 박사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
- 윤경아, 「양현문직절기 연구」, 서울대 석사
- 변진한, 「고전소설의 탈유기성에 대한 연구: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
- 김지연, 「소문록 연구」, 고대 석사
-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대 석사
- 정인영, 「옥수기 연구: 가문소설, 군담소설, 구운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석사
- 이주영,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 9, 2003.6.
- 이강욱, 「구운몽에 나타난 환생과 사념실현의 의미」, 『우리말글』 27, 우리말글

- 학회, 2003.4.
- 서인석, 「구운몽의 문체적 변주 : 김광순본 구운몽의 경우」,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이내중, 「謝氏南征記의 主要 異本 考察」,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12.
- 전성운, 「번언남정기·노존A 구운몽과 18세기 장편소설의 진로」,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12.
- 정길수, 「창선감의록의 작자 문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12.
-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12.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갈등—종법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男과 傭」,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이지하, 「창란호연록의 갈등 구조와 의미」,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12.
- 임지근, 「한조삼정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가을.
- 박일용,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가을.
- 송성욱,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특이성」,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가을.
- 서정민,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서술 방식을 통한 향유의식 연구」, 『국문학연구』 9, 2003.6.
- 장효현, 「화정선행록 연구」,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가을.
- 장시광, 「화산선계록에 나타난 계모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국제어문』 28, 국제어문학회, 2003.9.
- 장시광, 「화산선계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12.
- 장시광, 「쌍천기봉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동방학』 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 조광국,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玉樓夢, 玉樹記, 鸞鶴夢을

-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이승수, 「삼한습유의 기술 방식 세 가지」,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이기대, 「난학몽에 나타난 역사의 변용 과정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이기대, 「沈能淑의 문학 세계와 玉樹記」, 『語文論集』 48, 민족어문학회, 2003.10.

<판소리계소설>

- 김동건, 『토끼전 연구2』, 민속원, 2003.11.
이기형, 『필사본 화용도 연구3』, 민속원, 2003.11.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3.6.
정충권, 『흥부전연구』, 월인, 2003.
전신용 외, 『한국문화와 판소리』, 박이정, 2003.
전영신,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 문학마을사, 2003.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판소리문화』, 박이정, 2003.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 박사
강진모, 「고본 춘향전의 성립과 그에 따른 고소설의 위상 변화」, 연세대 석사
박선희, 「춘향전 방자의 기능 변이 연구」, 동의대 석사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성의 구현양상과 의미」, 경희대 석사
이태화, 「신문관 간행 판소리계 소설의 개작 양상」, 고대 석사
허원기, 「판소리 서사 기법의 정리적 합리성」,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12.
허원기, 「판소리 미학의 사상적 세 층위」,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4.
이훈상, 「조선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 —판소리 흥보전과 중인 문화의 발전」,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0.
장용석, 「아니리의 기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0.
고광수, 「판소리 사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고찰 —신제호 사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6.
서종문, 「판소리 사체에 관하여」,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4.
최기숙, 「언어의 육체성, 공감과 경험의 수사학—남원고사의 문체 미학」,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춘향전의 순차단락 고착화 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류준경, 「광한루기의 문화론적 지향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9, 2003.6.
류준경,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 31, 서울대학교 한국문

- 화 연구소, 2003.6.
- 백 완, 「春香傳의 時間構造 考察」, 『人文科學論叢』 40, 建國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2003. 12.
- 김진영, 「水山の 廣寒樓記를 통해 본 知識層의 小說論」, 『語文研究』 42, 2003.8.
- 홍순일, 「춘향가의 후대적 변이와 의미: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12.
- 최경환, 「열녀춘향수절가 연구 —언어사용역과 인물영역」, 『어문학』 82, 한국어문학회, 2003.12.
- 박진태, 「춘향가 발생설화를 통해 본 춘향가의 수용양상」,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8.
- 전신재,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춘향가의 극적 아이러니」,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정병현,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춘향전 서사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최동현,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판소리 춘향가의 사적 전개와 양식적 특징」,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이영미,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북한 민중가극 춘향전의 공연사적 위치와 특징」,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이미원,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현대극의 춘향전 수용」, 『공연문화연구』 6,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백현미,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장극 춘향전의 공연사와 양식상의 특징」,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양희서,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월극 춘향전 초탐」,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김수남, 「춘향예술의 양식 분화와 세계성; 춘향영화의 제작사와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 『공연문화연구』 6, 한국공연문학학회, 2003.
- 민병욱, 「村山知義 연출 춘향전의 공연사회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33, 2003.4.
- 진은진, 「심청전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효녀실기심청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4.
- 장성운, 「판소리 율격의 구현양상—심청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0.
- 김석배, 「김창환제 흥부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4.
- 강윤정, 「박동진 본 흥부가 사설의 특징 —신재효 본 <박흥부가>와의 비교를 중

- 심으로」,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4.
- 고영화, 「적벽가 장승 타령 대목의 이본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0.
- 강윤정, 「박동진 본 수궁가 아니리의 구연 방식」,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10.

<한글단편소설>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백 원, 『애정 고소설의 시간구조』, 박이정, 2003.9.
- 김재웅, 「강능추월전의 이본 형성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
- 이경희, 「장경전 이본연구」, 연세대 석사
- 윤경미, 「군담소설에 나타난 '고난극복과정' 연구: 조웅전 유충렬전을 중심으로」, 수원대 석사
- 이지영, 「조웅전 도움 구조의 수용미학적 접근」, 부산대학교 석사, 2003.
- 윤미란, 「숙녀지기 이본 연구」, 연대 석사
- 박경남, 「林慶業 영웅상의 실체와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이문규, 「洪吉童傳 作者是非 再論」,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김나영, 「신화적 관점에서 본 박씨전 소고」,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최지연, 「李鳳彬傳의 이본 특성과 변개적 성격—李大鳳傳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장경남, 「朝鮮後期 小說을 통해 본 父權의 形象: 어룡전, 양풍운전을 中心으로」, 『어문연구』 11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봄.
- 최재웅, 「숙향전의 공간 구성 원리와 의미」,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12.
- 이유경,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여성: 고소설의 전쟁 소재와 여성영웅 형상—여성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 강현모, 「임진록에 나타난 김덕령 전승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2.
-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 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정준식, 「김학공전 이본 재론—중국, 한국 배경의 선후문제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이헌홍, 「옥중금냥과 정수경전」, 『어문연구』 41, 어문연구학회, 2003.4.
- 민 잔, 「우화소설 호심전의 작가 추정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41, 어문연구학회, 2003.4.
- 경일남, 「동상기의 서민적 작품 성향」, 『어문연구』 41, 어문연구학회, 2003.4.
- 김승호, 「김왕후전 연구」, 『국어국문학』 134, 국어국문학회, 2009.9.
- 민영대, 「유봉전 研究 :崔尉子傳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회』 51, 한국언어문학회, 2003.12.
- 민영대, 「유봉전 研究」, 『韓南語文學』 27,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3.
- 곽정식, 「옥낭자전의 형성과정 및 성립시기」, 『어문학』 79, 한국어문학회, 2003.3.
- 정충권, 「三生奇緣의 작품세계와 후대적 수용」, 『한국문학논총』 34, 한국문학회, 2003.8.
- 이승수, 「深河 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화연구』 26,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3.12.
- 곽정식, 「권의중전의 열녀 형상과 작자의식」,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 김광순, 「신발골 덩각늑의 구조와 의미」, 『어문논총』 3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 백운용, 「강능추월전의 구조와 “헤어짐과 만남”」, 『어문논총』 3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3.
- 심치열, 「윤지경전에 나타난 폭력의 대응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50, 한국언어문학회, 2003.5.
- 이윤경, 「개모형 가정소설의 서사구조적 원리와 존재양상 연구」,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신태수, 「동굴탐색소설의 성격과 이상형 설정방법」,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6.
- 신태수, 「적강소설에 나타난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12.
- <전기, 한문전, 풍유록>
- 이복규, 『설공찬전연구』, 박이정, 2003.11.
- 이대형, 『금오신화 연구』, 보고사, 2003.7.
- 신해진, 『조선조 傳계소설』, 월인, 2003.12.

- 유정일, 「기재기이의 전기소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
-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대 박사
- 김문희, 「애정 전기소설의 문체 연구」, 서강대 박사
-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박사
- 김은경, 「허균전 연구」, 강릉대 석사
- 박혜진, 「운영전 이본의 변이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
- 김형석, 「몽유록류 소설 작가의 현실인식 연구: 조선 중기 작품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
- 이복자, 「만복사저포기의 우의성 고찰」, 『새국어교육』 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3.
- 오대혁, 「金時習의 선불교적 현실주의와 金鰲新話」, 『한국문화연구』 26,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3.12.
- 강소영, 「전기소설에 나타난 삼입 시사의 기능—금오신화를 중심으로」, 『동방학』 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 정운채, 「허생기우전의 변역 문체와 주석」,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유정일, 「서재야회록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5
-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정학성, 「전기소설 劉少娘傳 연구」,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권도경, 「백운선완촌결연록의 작품세계와 변신테마의 전기소설사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간호윤, 「최현전연구 :17세기 傳奇小說과 國文小說과의 관계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11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여름.
- 이복규, 「설공찬전이 실화에서 유래한 소설일 가능성」, 『국제어문』 28, 2003.9.
-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12.
- 박기석, 「閔翁傳 研究」,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이동근, 「傳 樣式의 歷史的 展開樣相」, 『우리말글』 29, 우리말글학회, 2003.12.
- 차충환, 「허생전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의 표출방식」, 『한국문화연구』 7,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12.
- 박기석,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 곽정식, 「곽재우전과 곽장군전의 비교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7집, 부산한문학회, 2003.4.
- 김형석, 「大觀齋夢遊錄에 반영된 沈義의 現實認識 研究」, 『韓南語文學』 제27

- 집,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3.
- 정한국,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대외인식의 단상—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학회, 2003.12.
- 정용수, 「원생몽유록의 문학적 이해와 역사 담론」, 『한문교육연구』 2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육홍타, 「16세기 몽유록 시론」, 『동양고전연구』 19, 동양고전학회, 2003.12.

<기타소설>

- 송진한, 『조선조 연의소설의 세계』, 전남대 출판부, 2003.2.
- 민영대, 『조선시대 궁중소설 연구』, 역락, 2003.
- 김진규, 「조선조 포로소설 연구」, 동의대 박사
- 김준형,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 골계류를 중심으로」, 고대 박사
- 김성수, 「한중록 연구: 장르 성향과 서술 미학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
- 조용호, 「개화기 국한문소설 女英雄 연구」,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 박여범, 「蛙蛇獄案의 구조적 특질 연구」, 『한국언어문학』 50, 한국언어문학회, 2003.5.
- 강 철, 「神說話와 그 小說의 變異」,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 2003.2.
- 김준형, 「破睡椎의 존재 양상」,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정준식, 「박소춘화 소재 노비담 연구」,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2003.8.
- 노영미, 「於野譚의 골계미 구현방식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3.2.
- 송철호, 「樸素村話를 통해 본 18세기 보수적 지식인의 모습」, 『韓國民族文化』 21, 釜山大學校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3.4.
- 정병호, 「19세기 한문소설 낙동야언 해제 및 주석」,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김창룡, 「이규보 가전의 연구」, 『국제어문』 29, 국제어문학회, 2003.12.
- 梁彦錫, 「高麗 假傳小說 研究」, 『人文學研究』 6,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2.
- 김현양, 「16세기 후반 소설사 전환의 징후와 수성지」,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강영순, 「야담의 우연적 소통 고찰」,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12.
- * 권도경, 憑虛子訪花錄의 변심 테마와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12 (학회 결정에 의거 게재 무효)